근린구매시설환경과 가정생산방식,가정생산지지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Neighborhood Facility Environment with the Way of Homeproduction and Homeproduction Supportability

차 성 란*
Cha, Seong Ran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neighborhood commercial facilities on the home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family expenditure(or household work time). For this purpose, data a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522 housewives in Seoul. The results shows that in the highly goods-intensive environment, the way of homeproduction is goods-intensive. Market dependence of the family is affected by homeproduction predisposition, income, and husband's job. Household work dependence of the family is affected by neighborhood facility environment, family type, income, and house value. Low home production supportability is apparent in the high family income, full-time housewives and low job status of housewife. On the other hand, high home-production supportability is apparent in the moderate income and high job status of housewife. As a result, housewives have much time and money resourses are not well supported by the neighborhood facility environment.

I. 서 론

50년대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된 이래로 70년대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으며 80-90년대에 걸쳐 분당, 평촌, 일산 등에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계속 건설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비접지성, 획일성 등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준다. 아파트 거주자들이 높은 수준의 주거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Michelson(1977)은 아파트 거주자들이 아파트를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정거장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주변의 각종 편익시설 수준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 문화센터, 체육시설,

*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각종 학원시설을 비롯하여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음식점 등의 구매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반면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구멍가게나 소수의 음식점, 재래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편익시설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족이 선택한 주거형태에 따라 근린의 구매시설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근린은 집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근접환경(near environment)으로 가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린의 구매시설환경과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원들의 가정생산활동 사이에는 인간 -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통수단의 발달이나 여가로서 쇼핑을 즐기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구매행동이 주거지에 근접한 근린구매시설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상적인 식품구입,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 구입은 주로 주택에 근접해 있는 근린구매시설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생산은 가사노동시간과 시장재화의 결합이므로(Becker, 1976) 일정한 가정생산방식은 결국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근린구매시설환경이 개인이나 가정의 시간사용결정 또는 시간배분과 관련된 일정한 성향이나 의도와 잘 일치되는 정도는 환경과 행동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비 지출에 영향을 주므로써 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가정생산방식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준거집단의 영향력, 모방소비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근린구매시설환경이 가정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집합적인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매시설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김정기, 1983; 강덕원,1987), 근린의 사회적 관계(노형수, 1988; 양준원,1990)에 초점을 둔 연구 등으로 이들 연구는 인간-환경과의 상호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있지 못하다. 그 중 Hyun(1986)의 연구는 근린내 시간사용활동과 복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그의 연구는 가정생산활동 외에 근린내에서 가능한 모든 활동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고 있어 가정생감산활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근린구매시설환경과 가정생산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특정 근린구매시설환경에서 높은 근린지지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정의 형태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린환경이 가정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므로써 원하는 바람직한 생활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 가정의 주부에게 근린구매시설환경이 가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하므로써 효율적인 가정생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가정의 재정관리 측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근린내 거주자의 사용자요구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린계획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생산방식

가정생산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를 결합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상품(Household Commodity)을 산출하는 활동이다. 가정생산의 투입요소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고정불변의 제한적 자원이므로 가정생산자는 가정생산 외에 다른 대안적 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효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분배할 것이다. 반면 시장재화는 각 가정이 지닌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력에 따라 가정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다르며 따라서 가정마다 시간과 재화가 갖는 상대적 가치가 다르다. 그러므로 가정관리자는 가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총효용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가정생산을 할 때 시간과 재화 중 어느 것 하나를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시간집약적이거나 재화집약적

인 가정생산방식을 나타내게 된다.

주부의 다양한 가정생산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식사준비하는 하나의 가정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어떤 주부는 상대적으로 비싼 시간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위비용이 낮은 금전소득으로 외식이라는 시장의 재화를 구입하는 재화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소득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식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시간을 더 투입하는 시간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과 재화구입을 위한 소득은 어떤 가정상품을 생산할 때 두 자원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좀 더 가치가 높은 것을 가치가 낮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정생산에서 시간과 재화 사이의 대체는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시간과 금전사용에 대한 가치나 태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hapin(1974)은 시간사용의 결정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틀에서 동기, 개인적 특성, 서비스와 환경적 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질적 수준에 대한 지각 등을 영향변수 집단으로 지적하였다. 가치나 태도에 영향을 받는 시간사용은 반복적인 결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시간사용방식의 성향을 형성하게 된다. 성향은 사회문화적 영향력 하에서 소유한 자원, 가치나 태도를 바탕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를 말한다. 가정생산은 시간과 재화를 결합하여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활동으로서 주부는 각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상태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가정생산방식에 대한 성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공간자원에 의존하며(Feldman과 Hornik, 1981) 따라서 근린은 특정한 가정생산방식의 의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매개적 기능을 하게 된다. 근린은 시간집약적, 재화집약적 생산방식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시킴으로써 개별가정의 가정생산방식 나아가 효용최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생산과 근린환경

근린의 개념은 지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정의적 요소 등으로 정의된다. Wilson과 Schultz(1978)는 근린을 " 공통된 사회적 결속들을 인식하면서 동일한 지리적 영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소집단"이라 정의하였다.

근린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 정의적 감정은 근린의 기능성, 즉 근린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서 비롯된다. Schenberg와 Rosenbau (1980)는 근린내 주민들 사이의 빈번한 사회관계는 근린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그러한 사회관계는 학교, 교회, 클럽, 상점, 술집과 같은 근린내 시설과 공유공간의 사용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하였다. Golany(1976)의 정의에 의하면 근린은 공간상의 경계와 사회적 망을 가지며 지역시설을 활발히 이용하므로써 주민간에 감상적, 상징적 의미를감 지니는 작은 지역이라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근린은 일정한 공간적 경계를 지니며 그 내부의 구성요소인 주민과 물리적 시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등이 그것의 환경적 특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좀 더 이상적인 근린환경은 근린의 구성요소인 주민과 시설들 사이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근린의 물리적인 조건은 첫째, 거주지로서의 편익성 제공 및 유지가능성이다. 근린은 거주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편익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구매시설의 경우는 시설의 유지를 위해 시설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거주자들의 수요와의 균형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둘째, 가능한 일상적 활동범위이다. 여러 학자들의 근린정의에 의하면 반경1/4마일(Perry, 1929)로부터 1.5마일(Weiss, 1976;Zehner, 1977)에 이르기까지 집으로부터 국민학교 또는 공원이나 구매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최대거리로 근린을 정의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

운 시장과의 거리가 전국 평균 651.3m였으며 서울은 평균 619.4m로 나타나 집으로부터 반경 400 - 800m(이윤식, 1981)의 도보거리가 근린계획의 실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근린의 가정생산지지도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tranaction)는 기본적인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성향, 작용, 평가가 그것이다. 성향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있는 장소를 지각하고 거기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작용은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을 말한다(Stokols, 1977). 근린의 가정생산지지도는 주부의 가정생산성향이 특정 근린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다.

환경개연론자들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 얼마나 많이, 어떤 영향으로 둘 사이의 인과적 영향력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Gans (1976)는 그의 Levittown연구에서 주거를 이동한 후 나타난 거주자의 변화된 행동을 의도된 변화(intended changes)와 무의도적 변화(unintended changes)로 설명하였다. 의도된 변화는 이동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성향(predispositions)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무의도적 변화는 주거이동에 따른 결과로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에 기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거이동한지 2년후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이나 조직참여가 증가했다. 그는 이를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더 빈번히 갖게 되기를 원했으며 연령, 계층의 관점에서 자신들과 좀 더 비슷한 이웃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거주자의 성향과 이를 성취하는데 지역사회 제공하는 기회가 합해져 의도된 변화가 나타난다. 반대로 무의도적인 변화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생활비의 증가와 같이 개인의 성향보다는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Kaplan(1983)은 이와 비슷하게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 행동이 이루어지는 필요행동, 내부적인 개인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목적적 행동과 성향의 3가지 개념을 구분 제시하였다.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험적 환경요소로서 태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인 요소, 행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Krech et al., 1962). 이 중 행태적 요소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려는 하나의 소인(predisposition)을 말한다. 도시계획가들은 개인의 활동배경을 계획함에 있어 개인이 지니는 객관적 특성보다는 이와같은 행태적인 요소 즉 "준비된 상태(state of readiness)"(Allport, 1935), 또는 "반응할 소인"(CampbeH,1963)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를 시간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이 시간을 사용하는 행동이나 활동이 축적되면 개인 특유의 활동유형이 파악된다. 이같은 활동유형은 개인의 활동성향으로서 곧 '반응소인'이라 할 수 있다.

가정생산의 투입요소인 시간과 시장재화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주부 특유의 방식으로 가정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Kaplan이 폭넓게 정의한 '계획'이나 '의도'에 가깝다고 하겠다. 주부가 가정생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집약적으로 또는 시간을 시장의 재화로 대체하고자 하는 가정생산성향은 경제적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근린이 제공하는 물리적 구매시설에 대해 일정한 양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적 측면이 좀 더 부각된다.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연론적 입장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조화되는 경우를 행동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으로 다소 차이있게 개념화시키고 있다.

행동적 관점은 근린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시간사용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간사용의 결정요소를 동기, 개인적 특성, 서비스와 환경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질적

수준에 대한 지각(Chapin, 1974)이라고 할 때 전자의 두 변수는 시간사용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소이며, 나머지 둘은 시간사용의 공급적인 요소로서 둘 사이의 일치에 따른 시간사용을 지지해주거나(support), 제한시키는 정도가 결정된다. 이를 Hyun(1986)은 근린내 시간사용량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 환경의 지지도(supportiveness)라 하였다. 여기서는 행동의 실행이 곧 인간과 환경 사이의 일치로서 여겨진다.

가정생산의 효용최대화를 위해 주부가 결정하는 가정생산방식은 '활동성향'으로서 이는 시간과 재화와의 결합비, 즉 시간사용의 수요적 측면이며 근린구매시설환경은 시간사용의 공급적 측면으로서 둘 사이에 일치를 가정생산지지도라는 행동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라 가정생산방식은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라 시장의존도 및 가사노동의존도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가정생산의 시장의존도 및 가사노동 의존도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근린의 가정생산지지도와 가정의 구조적 경제사회적 변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는 가정구조 및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가정생산성향은 정지영(1990), 조성은(1990)등의 연구를 참고로 가사노동시간과 시장재화 구입에 지출되는 금전에 대해 주부가 지각하는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근린구매시설환경은 이용할 수 있는 구매시설의 종류, 구매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수준으로 측정하였다.[1] 근린구매시설환경을 측정하는 두가지 변수인 재화집약적 수준과 시간집약적 수준은 조사결과 동일 연속선 상에 있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두 점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변수로 다루었다.

가정생산방식은 가공, 반가공된 편의식품을 구입하는 정도, 주문음식 및 외식을 하는 정도와 원재료 식품구입빈도를 조사하여 합산하였다.

시장의존도와 가사노동의존도는 각기 총 가정생산투입량에 대한 노동절약적 시장재화구입비용의 비율, 가사노동시간의 비율로 측정된다.

가정생산지지도는 식생활영역 가정생산과 관련하여 원재료나 시장재화를 근린내에서 구입할 때 3점, 근린주변에서 구입할 때 2점, 근린밖에서 구입할 때 1점을 주며, 여기에 1점부터 5점까지의 구입하는 빈도를 곱하여 각 식품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였다. 원재료 또는 재화를 가장 빈번하게 모두 근린내에서 구입할 때가 기준점수가 된다. 시간집약적인 경우 기준점수는(3점(근린내)x 5점(일주일에 2-3회이상구입)x8개 품목) 120점이다. 마찬가지로 재화집약적인 경우의 기준점수는 (3x5x14) 210점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110명의 주부를 대상으

1)구매시설의 종류로는 노점상이나 행상, 소규모 연쇄점, 소형, 중형규모의 슈퍼마켓, 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 연금매장, 알뜰시장, 재래시장, 도매시장, 인근지역의 백화점을 선정하여 이들 시설이 집으로부터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을 경우 3점, 도보로 20분 또는 자동차로 20분 이내에 있을 경우 2점, 그 이상의 거리에 있거나 시설이 없는 경우 0점을 주었다. 그리고 근린내에 있는 음식점을 종류별로 2개이상, 1개, 없는 경우에 대해 점수를 주어 위의 점수와 합산하였다.
구매시설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구입가능한 가공식품이나 원재료 상품의 종류, 양적, 질적 수준 등에 대해 3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는 1991년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소득분포도와 행정구역도를 참고로 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850부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22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산분석과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으로서 응답자인 주부들의 연령분포는 41 - 45세가 35.3%, 36-40세가 32.1%, 46-50세가 15.4%, 35세 이하가 13.9% 등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81-120만원이 28.7%로 가장 많았고 151-200만원이 19.7%였다. 주택가격은 4100만원에서 1억 사이가 26.6%, 1억천만원에서 2억까지가 24.3%였다. 주부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75.3%였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4.2%였다. 가족수는 4인가족이 42.9%, 5인가족이 28.2%였다.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34.2%, 연립주택이 11.1%, 대단지아파트가 46.4%, 소단지아파트가 8.3%였다. 조사지역의 구매시설환경은 재화집약적 수준이 '상'인 경우가 27.2%, '중'이 41%, '하'가 31.8%였으며, 시간집약적인 수준이 '상'인 경우가 32.4%, '중'이 32.4%, '하'가 35.2%로서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재화집약적인 구매시설 수준은 중간정도가 가장 많으며 시간집약적인 구매시설 수준은 높은 경우에서부터 낮은 경우까지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2.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른 가정생산방식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른 가정생산방식의 차이를〈표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근린구매시설환경을 재화집약적인 정도에 따라 상, 중,하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가정생산방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화집약적 수준이 높은 근린구매시설환경에 거주하는 주부는 그렇지 않은 환경의 주부보다 유의하감게 더 재화집약적인 방식으로 가정생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의 구매시설환경에서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해주는 시장재화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때 주부는 보다 시간절약적 재화를 빈번히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른 가정생산방식의 차이

집 단		빈 도	평 균	F	DMR
재화집약적 수준	상	142	91.31	***	A
	중	214	82.70	F=7.31	B
	하	166	77.79		B
시간집약적 수준	상	169	84.70		A
	중	169	84.78	F=0.76	A
	하	184	81.17		A

3.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른 가정생산의 시장의존도 및 가사노동의존도

가정생산방식의 차이가 가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재화집약적, 시간집약적 수준에 따라 가정생산의 시장의존도와 가사노동의존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2-1〉에 의하면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재화집약적 수준에 따라 가정생산의 시장의존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재화집약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산에 투입되는 가사노동시간과 식생활비 중에서 가공식품, 주문음식, 외식 등의 시장재화에 지출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국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른 가정생산방식의 차이가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른 가정생산의 시장의존도

집 단		빈도	시장의존도(M)	F	DMR
재화집약적	상	142	0.00071	**	A
수준	중	214	0.00061	F=5.63	A B
	하	166	0.00052		B

2)근린구매시설환경과 주거형태는 상관관계가 있어 (r=- .36, p< .001) 아파트인 경우 재화집약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시간집약적 수준에 따른 가사노동의존도를 〈표2-2〉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간집약적인

<표 2-2>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른 가정생산의 가사노동 의존도

집 단		빈도	가사노동의존 (M)	F	DMR
시간집약적	상	169	0.999778	*	B
수준	중	169	0.999792	F=3.99	A B
	하	184	0.999811		A

구매시설환경에 거주하는 주부일수록 가정생산의 투입요소 중 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재화집약적수준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의 절대량은 차이가 없었지만[3] 가정생산의 두 투입요소, 재화구입비용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 가정생산투입량에서 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곧 가정이 지닌 인적, 물적 자원에 따라 유지하고자 하는 생활수준이 차이가 나며 따라서 가정생산의 총 투입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이나 시간절약적 시장재화구입비용 즉 가사노동 사회화 비용만으로 여러 가정의 시장의존도를 비교하거나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4. 가정생산의 시장의존도 및 가사노동의존도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각 가정에서 가정구조 및 사회경제적 차이, 거주하고 있는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차이가 시장의존도나 가사노동의존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3).

가족형태와 주부취업은 가변수처리를 하여 각기 핵가족인 경우를 '1', 확대가족인 경우를 '0'으로 하고 , 취업주부인 경우를 '1', 전업주부인 경우를 '0'으로 하였다.

가정생산의 시장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정생산성향, 소득, 남편의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산성향은 시장의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β=0.264 였다. 다음으로 시장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이었다(β=0.180). 즉 소득이 높을수록 시장의존도는 높아진다. 또 남편의 직업적 지위는 시장의존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β=0.118).

〈표3〉가정생산시장의존도 및 가사노동의존도에 대한 회귀분석[4] (재화집약적인 근린구매시설환경의 경우)

	시장의존도		가사노동의존도	
	B	Beta	B	Beta
근린구매시설환경	.0037	.0053	-.0019	-.119**
가정생산성향	.0154	.264***	-.0012	-.096
가족형태	.112	.084	-.0311	-.104*
가족수	.0149	.035	-.0089	-.092
주부취업유무	.0564	.050	-.0008	.003
가구소득	.0014	.180***	-.0006	-.313***
주부교육수준	.0015	.009	-.0013	-.036
남편직업	.0536	.118*	-.0067	-.065
주부연령	-.0021	-.024	-.0011	-.052
주택가격	.0003	.019	-.0000	-.108*
상 수	-.00052		1.00013	
설명력	R= .20		R= .24	

이상 시장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산성향, 소득, 남편의 직업은 모두 환경적 변수가 아니라 활동 주체인 주부, 또는 가정이 지닌 개인적 변수들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장의존도

3)본 연구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근린구매시설의 재화집약적 수준에 따른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시간, 식품구입에 드는 시간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평균치가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시장의존도와 가사노동의존도는 최대치가'1'이므로 회귀계수 중 비표준화계수인 B값이 너무 작아 편의상 B값에 1000을 곱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는 주부에 의해 가정의 경제적 자원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의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린구매시설환경, 가족형태, 소득, 주택가격이었다. 근린구매시설환경은 가정생산의 시장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β=0.119) 근린구매시설의 재화집약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이 가정생산투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앞서 분석한 시장의존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재화집약적 수준은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투입요소보다 그로 인해 감소되는 가사노동시간요소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가사노동의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β=0.313)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생산 중 가사노동시간에 의한 비율은 낮아졌다. 주택가격 역시 가사노동의존도에 유의한 영향(β=-0.10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가사노동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가정구조적 변수로서 (β=-0.104) 핵가족일수록 가사노동의존도는 낮아졌다. 확대가족인 경우 부모세대의 식습관이 이미 고정되어 있으며, 주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뿌리박혀 있어 많은 량의 가사노동시간 투입을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음식을 자주 장만하거나 시장재화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5. 가정생산지지도와 가정구조적, 경제사회적 변수와의 관계

거주하고 있는 근린의 구매시설환경하에서 어떤 가정구조적, 경제사회적 변수 특성을 지닌 가정의 주부들이 더 빈번하게 근린내의 구매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주문음식을 시키며, 외식을 하는지 또는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근린밖으로 활동영역을 이동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근린구매시설환경을 각기 재화집약적 수준과 시간집약적 수준에 따라 분류한 후, 각 근린환경별로 가정생산방식에 따른 가정생산지지도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만을 〈표4-1〉과 〈표4-2〉에 요약 제시하였다.

우선 재화집약적인 수준이 높은 근린에서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재화집약적인 방식의 가정생산을 근린내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소득이 높거나 가격이 높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부는 근린내의 구매시설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종류나 질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더우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기 쉽다는 점이 근린밖의 구매시설을 이용하는데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가사노동 이외의 자유시간이 생긴다해도 자녀양육을 위한 가사노동의 부담이 있어 융통성있는 시간사용이 방해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식생활영역과 관련된 재화구입을 근린내의 구매시설로 한정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화집약적인 수준이 '중'인 경우는 두가지 중 어느 방식도 근린내 가정생산지지도가 높은 가정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화집약적 수준이 '하'인 경우는 시간집약적 생산방식에서만 장자연령, 가족수에 따른 가정생산지지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장자연령이 7세 이하이거나 16세 이상인 경우 시간집약적인 방식의 가정생산을 근린내에서 더 빈번하게 하며 8-13세인 경우는 근린밖으로 가정생산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주부들은 근린밖으로 이동해서라도 자신이 지닌 시간집약적인 성향대로 가정생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린구매시설의 재화집약적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가족수가 적을수록 시간집약적 방식의 가정생산을 근린내 구매시설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가족수가 적은 경우 구입해야 할 식품원재료의 양이 적으므로 근린밖으로 나가 값싸게 구입하므로써 얻는 금전적 이득보다 이동하는데 따른 시간비용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표 4-1〉 가정생산지지도에 따른 가정구조적. 경제사회적 변수 특성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재화집약적 정도					
		상		중		하	
		가정생산지지도		가정생산지지도		가정생산지지도	
		상	하	상	하	상	하
재화 집약적 생산방식	결혼기간	20년이하	21년이상				
	소 득	150만원이하	151만원이상				
	주택가격	3억이하	3억천만 이상				
시간 집약적 생산방식	장 자 연 령					7세이하 14세이상	8-13세
	가 족 수					5인이하	6인이상

〈표4-2〉가정생산지지도에 따른 가정구조적. 경제사회적 변수 특성 [5]

		근린구매시설환경의 시간집약적 정도					
		상		중		하	
		가정생산지지도		가정생산지지도		가정생산지지도	
		상	하	상	하	상	하
재화 집약적 생산방식	주택가격	3억이하	3억천만 이상				
시간 집약적 생산방식	주부취업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전업주부 자영상공 기 능 공 단순노무

〈표4-2〉에서는 근린구매시설환경을 시간집약적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에서 재화집약적 또는 시간집약적 생산방식의 가정생산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시간집약적 수준이 높은 근린구매시설환경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집단일수록 재화집약적 방식의 가정생산을 근린내에서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택가격이 높은 집단의 주부는 상대적으로 근린밖의 구매시설에서 재화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등에 취업하고 있는 주부들은 근린구매시설의 시간집약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집약적 방식의 생산을 근린내의 구매시설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전업주부 집단과 자영상공업. 피고용 기능직. 단순노무직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집단은 근린의 가정생산지지도가 낮았다. 즉 이들 집단의 주부는 근린구매시설환경이 시간집약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시간집약적인 가정생산을 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근린으로부터 멀리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편의를 위해 가정생산지지도의 상.하 집단구분은 DMR에서 동일집단임을 나타내는 두가지 기호 A.B 중 A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상'. B만 있는 집단은 '하'로 구분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근린구매시설환경과 주부들의 가정생산활동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근린구매시설환경이 가사노동시간이나 식생활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근린환경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가정생산지지도를 나타내는 가정은 어떠한 특성을 지닌 가정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근린구매시설환경이 재화집약적일수록 가정생산방식은 재화집약적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시간집약적일수록 시간집약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근린은 구매시설이 가정생산에 투입되는 재화를 제공하므로써 활동의 기회를 주며 따라서 가정생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가정의 근접환경자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린구매시설환경은 사회전체의 유통구조의 변화, 시장재화 생산기술의 발전과 같은 사회의 기술경제적 변화와 접하게 되는 가정의 가장 직접적인 환경이다. 근린구매시설환경이 제공하는 활동기회에 좀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소인(predisposition)'을 지닌 가정이 있지만 근린구매시설환경은 가정생산방식을 형성하는 영향력의 근원처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근린구매시설환경에 따른 시장의존도나 가사노동의존도의 차이를 통해 볼 때 가정이 선택하는 주거환경은 가족원으로 하여금 가계의 금전적 지출이나 가사노동시간과 같은 무의도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 시장의존도는 가정생산성향과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존도는 자신이 원하는 가정생산방식을 수행할 수 있는 근린구매시설환경을 선택하므로써 생겨나는 의도적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사노동의존도에는 가구소득과 근린구매시설환경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정생산 중 가사노동의존도는 근린구매시설환경을 변경시키므로써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무의도적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근린구매시설환경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높은 집단의 주부일수록 재화집약적 방식의 가정생산은 근린밖감으로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많은 전업주부와 경제적인 자원제약을 상대적으로 더 느낄 수 있는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들은 시간집약적 방식으로 가정생산을 하기 위해 근린밖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결국 근린구매시설이 주부들의 가정생산성향을 잘 지지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

첫째, 근린구매시설환경과 가정생산활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가정생산활동을 설명하는 개인적 변수로 가정구조적 변수와 경제사회적 변수 이외에 영향력이 있는 사회심리적 변수들을 탐색, 연구모형을 세련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학적 관점과 근린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점을 접합한 초보단계의 연구로서 근린환경 요소 중 근린구매시설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가정생산은 근린의 공공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기타 근린시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린내 시설들을 연구에 좀 더 체계적으로 포함시키므로써 가정생산활동에 대한 근린환경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덕원, "아파트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 김정기, "아파트단지내 구매시설이용에 관한연구",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3. 양준원, "대도시 근린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선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4. 노형수. "경로분석을 통한 근린에 대한 주민의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5. 최윤식. "도시주거단지 개발계획에 있어 근린생활권 개념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의 APT 단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6. Becker. G. 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 Vol. 75. No. 299. 1965.
7. Feldman. L.P. & Jacob Hornik.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CR. Vol.7. March. pp.407-419. 1965.
8. Gans. Herbert J., People and Plans: Essays on Urban Problems and Solutions. Basic Books. Inc., New York.
9. Golany. G., New Town Planning. N.Y.: John Wiley & Sons. 1976.
10. Hyun. Joong-Young. "Time Use. Neighbor-hood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Well-Being of Americans". The Univ. of Michigan. Ph.D., 1986.
11. Kaplan S. , "A Model of Person-Environment Compatibility". E & B. Vol. 15. No. 3. 1983.
12. Krech. D., R.S.Crutchfield. and E. L. Ballachey. THe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aGraq-Hill. 1962.
13. Stokols. D., Origins and directons of Environment - Behavioral Research in Perspectives on Environment and Behavior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lenum Press. New York. 1977.
14. Michelson. W., Environmental Choice. Human Behavior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77.
15. Wilson. R.A. and D.A. Schulz. Urban Sociolog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8.
16. Zehner. R.B. and Marans. R. W., "Residential Density. Planning Objectives. and Life in Planned Communities." J.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9. pp337-345. 1978.